

경기도의회 본회의... 민주당 “윤 때문” 국힘 “김 때문”

(윤석열)

(김동연)

남동섭 도의회 민주당 대표 “검찰 앞세운 탄압에 몰두”

“윤 대통령 때문에 민생 파탄”

“김동연 낙제점... 헛공약만”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경제부총리 때로 돌아오길”

경기도의회 민주당 남동섭 대표의원은 16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및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약속했다.

남동섭 대표의원은 “민생경제가 파탄으로 치달고 있다”면서 “지금의 민생 파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 그리고 독선과 오만한 국정운영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검찰을 앞세운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어 “국민들의 한숨과 한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하지 못하면 경기도의회가 시작하겠다”면서 “민생이라는 공통 분모를 향해 국민의힘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내 시원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제11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소회도 밝혔다.

남 대표의원은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간이었다”면서 의장 선



남동섭 민주당 대표의원이 16일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출을 둘러싼 지각 원구성, 국민의힘의 내분으로 인한 의회 파행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범한 제11대 의회는 여와 야를 망라하고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면서 “제11대 의회 후반기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대화와 소통, 배

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대표의원은 이 밖에도 한반도 전쟁위기 방지, 국민의힘의 서울편입 공약 철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위한 강한 의지도 밝혔다.

김인창 기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16일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16일 대표의원 연설에 나서 김동연 도지사를 향해 ‘낙제점 도지사, 위기의 경기도’라고 비판하며 도의회 국민의힘이 위기의 경기도에 희망을 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김정호 대표의원의 대

표연설 핵심 키워드는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비판하며 도의회 국민의힘이 위기의 경기도에 희망을 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대표의원은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의 경기도’ △‘낙하산’과 ‘불쾌한 반란’만 가득한 인사로 인한 잡음 △허상의 숫자놀음에 불과한 경기도포 투자

유치 △정치에 눈먼 도지사로 인해 산으로 가는 역점 사업 등을 거론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제대로 된 변화와 혁신을 촉구했다.

서두에는 “경제전문가·경제해결사 김동연은 사라지고 ‘정치꾼 김동연’만 남았다”며 “삶의 현장 구석구석, 민생 곳곳에서 도지사를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이란 말도 허무맹랑한 헛공약에 불과했다”고 맹공했다.

덧붙여 “헛뜰기에만 혈안이 된 독설가가 아닌 성과로 증명하길 원했던 경제부총리 시절의 김동연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표심에만 몰두하지 말고 진심으로 도민을 위한 도지사가 돼달라”고 전했다.

또한 잡음으로 가득 찬 인사와 관련해 “덕수상고 출신, 모피아 인사 발상지, 보은 인사관 수석어만 들려온다”며 “기득권의 틀을 깨야 한다는 의침은 새로운 기득권의 형성으로 빛이 바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김동연 왕국으로 전락하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고 도정 인사가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인창 기자

‘복당 신청’ 이성만 “국민 뜻 받아 단일화하자”

“지역에서 아직 생소한 분 부평갑 승리 위해 단일화”

동분투 의혹 관련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총선 출마 후 복당 신청을 한 이성만 국회의원이 민주당 인천 부평갑 전락공천된 노종면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이성만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어제 뜻밖에 민주당에서 영입 인제 노종면 전 TYN 기자를 인천 부평갑 전락공천했다”며 “노 전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에 저항한 훌륭한 분이어서 언론 자유 수호를 위

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반면 지역에선 아직 생소한 분이어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는 노종면 영입 인제와 그를 부평갑 전락공천자로 정한 민주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선거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열이 아닌 야권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서 노종면 전락공천자에게 단일화해서 누가 부평갑의 정권 심판 적임자인지, 누가 부평갑

에 가장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인지 국민의 선택을 받고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만여 당원과 주민께서 복당 청원 서명을 해주신 그대로 제 속은 여전히 파랗고 말과 행동도 여전히 민주당의 정신과 함께한다”며 “단일화를 통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저의 제안에 민주당과 노종면 전락공천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조재민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인천 부평갑 전락공천된 노종면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사진=조재민 기자)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 취소 본안 소송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 가치분 신청 법원서 기각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돌렸다가 의장직을 잃은 허식(66)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직위를 되찾으려고 가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허 전 의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직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낸 소명자료만으로는 의장 불신임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 우려를 예방

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허 전 의장이 인천시의회의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을 취소해 달라 낸 본안 소송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심리는 열리지 않았다.

허 전 의장은 지난달 2일 전체 39명의 동료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총 40면으로 제작된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

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주장’이 담겼다.

여야 시의원들은 그의 행위가 지방자치법과 5·18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해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찬성 24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그러나 허 전 의장은 “신문을 동료 의원들과 공유한 것이 의장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협뉴스)

인천글로벌캠퍼스 노후화 시설 개선 촉구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재단, 순차적인 개·보수 추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노후화된 시설들이 순차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정해권(국힘·연수)을 비롯해 김대중(국힘·미추홀2)·박창호(국힘·비례)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재단)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재단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캠퍼스 건물 내 건축·소방·전기·승강기 등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캠퍼스 내 학생들이 거주하는 생활관 시설을 중점 점검했다.

지난 2011년 준공된 생활관은 이미 10년 넘게 사용돼 오면서 기계 장비 등의 내구연한이 지난 지 오래다. 생활관 B동의 경우 1300개 객실 냉·난방기(FCU)가 노후화로 인해 누수 등이 발생하는 등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시설들이 입주대학에서 상시 이용한다는 점에서 오래된 시설들을 조속히 교체·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시설 보수·교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단 측에 따르면 단기 계획으로 경미한 사항은 자체 인력으로 보수·보강 조치, 자체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올해 예산 내에서 보수공사 실시 등을 진행 중이며, 또 중장기 계획으로는 지난 2021년 수립한 ‘중장기 노후화 기

계설비 교체 계획’에 따른 구역별 순차적 개·보수 및 개선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관 B동 냉·난방기 중절반은 올 여름방학 중에,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겨울방학 기간에 교체할 예정이다.

정해권 위원장은 “세계의 인재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낡고, 고장 나 있는 모습은 인천글로벌캠퍼스를 세계 수준의 글로벌 교육 허브라고 부르기 무색하게 만드는 ‘욕의 티’라며 “글로벌 교육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는 재단의 비전에 걸맞게 캠퍼스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글로벌캠퍼스는 해마다 1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에는 113억원, 2021년에는 14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인천글로벌캠퍼스에 대해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종삼 기자

총선 출사표

“팔달 변화 끝까지 책임”

김영진 예비후보

김영진(사진) 국회의원이 17일 수원의 전통 시장이 밀집한 지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3선 국회의원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3선 국회의원이라는 큰 도전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의 신뢰와 성원 덕분”이라며 지역민에 대한 감사의 뜻을 가장 먼저 전했다.

이어 “지난 2011년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뛰어들어 이후 지금까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일꾼은 김영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팔



달이 키운 큰 일꾼, 김영진이 팔달의 변화를 완성하고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팔달을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21대 총선에서 수원시 팔달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21대 국회에서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위원 및 민주당 원내총괄수석 부대표,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다.

김희열 기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열어

김주영 예비후보

김주영(사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 예비후보는 “5호선, GTX-D, 인천 2호선이라는 3개 철도망 확충을 빠르게 실현해 김포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명소와 문화공간을 늘려 시민이 더 행복한 김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민주당 김포시를 박상혁, 고양시정 이용우 국회의원, 김운자 혁신더하기 연구소 이사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다. 선거사무소는 김포시민과 당원 등 지지들로 성황을 이뤘다.

김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김포시민의 삶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먼저 지난 2021년 6월 광역철도망이 하나도 없던 김포에 3개의 철도망을 놓는 것으로 반영된 제4차철도망계획, 즉 5호선 김포 연장선과 GTX-D, 인천2호선의 빠른 추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삼 기자

임태희 경기교육감 면담

방문규 예비후보

방문규(사진) 국민의힘 수원병 예비후보가 16일 경기도 교육청에 방문해 ‘수원시 팔달구 어린이·학생·학부모를 위한 7개 아동·교육 정책 제안서’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수원 예술고등학교 신설 △도심 내 학교복합시설 조성 △초등학교 통학 배정 변경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등 수원시 팔달구 어린이·학생·학부모를 위한 7대 정책이 포함됐다.

방 예비후보는 “팔달구의 경우 원도심 특성상 주민편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



족하고 그마저도 일부 지역에 편중된 상황”이라며 “지역내 학교부지를 활용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해 문화·체육·복지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라며 “인계초·권선초·세류초·매산초 등을 비롯한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문제점을 파악해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열 기자